

교법사 5명이 쓴 계율이야기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낄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

울장서 퍼올린 삶의 지혜

현대는 '바쁨'이 미덕인 시대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바쁨' 때문에 지친 대가는 어떠한가. 시간에 떠날래 뭣도 살아가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유익하지 않은 삶을 동경하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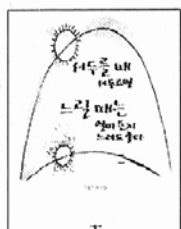
유동호(광동여고)·이학주(명성여고) 씨 등 다섯 명의 현직 교법사가 펴낸 <서두를 때 서두르면 느낄 때는 얼마든지 느려도 좋다>(시공사)는 현대인들의 바쁜 삶을 잠시 멈추게 한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는 삶의 지혜를 일러준다. 그 지혜의 원천은 <사분율>, <마하승가>, <우바새경>, <십승율> 등 율장이다. 계율의 사상을 우리 일상 속으로 바짝 끌어당긴 것이다.

대중들을 위한 율장 관련 입문서가 드문 현실에서 생활과 계율을 녹여서 조화롭게 접목시킨 것은 새

로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하지 마라"식의 금계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나만이 아닌 모두의 친구로', '제 앞가림 먼저', '다이어트를 왜 하나' 등 그다지 새로운 건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찬찬히 짚어내고 있다.

'머리에 불은 불'이란 글을 살펴보자.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빨리, 더 빨리를 외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즐겁고 담담한 세상사 따위는

청소년 포교 경험 살려 '다이어트 왜 하나' 등 현대인 일상 계율집근



고통이 온 사방에 넘치고 있는데 어찌 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발등에 떨어진 불은 조금 천천히 꺼도 좋다. 하지만 머리에 불은 불은 당장에 꺼야 한다." 서두를 일 때 서두르다면 느리게 할 일은 얼마든지 느리게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에 소개된 81가지 율장이야기들은 참사를 찾고, 세상을 바로 보고, 참된 삶의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물론 그 대안들은 모두 율장에서 퍼올린 생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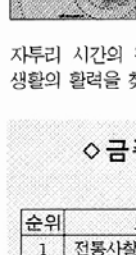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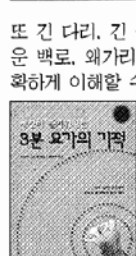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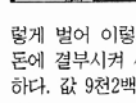
삶의 지혜들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현직 교법사들이 바른 불교, 쉬운 불교를 위해 내용은 첫 결실이란 점에서 이 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불교에 대한 얇고 수행연륜이 짧은 청소년들,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포교했던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일반화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심자나 일반인들까지 누구에게나 부담없이 읽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한편 교법사들로 구성된 (가칭) 경전자료편찬위원회는 이번에 펴낸 <서두를 때 서두르면...>에 이어 아함·본연(본생)·대승경전, 그리고 후대불교인들 등 5권을 불교 경전 현대화 작업 일환으로 매년 펴낼 계획이다. 값 6천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새로나온 책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정유 지음, 우리)= 정유 스님 전집 시리즈 네번째 권 소설 경허, 근대 한국불교사에 화려한 삶을 살다간 거목 경허 스님. 그의 파란만장한 일화가 한편의 소설로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지옥과 아귀, 축생의 삼악도를 거리낌없이 살았던 경허의 삶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자 경이를 안겨준다. 하지만 그가 선사로서 파계의 허물은 남기지 않았다. 값 1만원.

▲부처와 함께 하는 주시투자(홍준기 지음, 굿인포메이션)= 돈의 정신, 재테크의 원칙, 주시투자의 법칙 등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망한 주시 지침서. 일확천금을 벌게 하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돈을 통해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알게 해준다. 때문에 이 책에는 '돈이란 이렇게 벌어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 하고 무릎을 칠 정도로 돈에 결부시켜 새겨줄 만한 경전의 수많은 예화들이 가득하다. 값 9천2백원.

▲자문영 꽃밭에서 나는 울었네(공선옥 지음, 창작비평사)= 지난 91년 계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중편소설 '씨앗'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공선옥 씨의 첫 산문집. 이 책은 산과 눈과 발 속에 파묻혀 살았던 전남 곡성에서의 생활과 모성, 작가의 유년기 추억과 가슴 아픈 기억, 그리고 모자 사랑을 이루게 된 현재까지의 삶이 녹아 있는 40여 편의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값 7천5백원.

▲두루미(배성환 지음, 다른세상)= 두루미 전문학사 배성환 씨의 30년 두루미 연구 결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멸종위기에 처한 세계적인 희귀조 두루미의 생태를 담은 '두루미 백서', 두루미의 하루·일년생활, 삶의 특성,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는 곳, 전세계 분포상황에 이르기까지 두루미의 모든 것을 담았다. 또 긴 다리, 긴 목, 긴 부리를 가져 두루미로 잘못 알기 쉬운 백로, 왜가리, 황새, 해오라기 등과 비교해 두루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값 1만3천원.

▲세상이 즐거워지는 3분 요가의 기적 (미야마 사토시 지음, 최병연 옮김, 하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출퇴근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무의식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순간 '3분'씩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모아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신에게 재투자한다면 어떻게, 이 책에서 권하고 있는 '요가식' 자투리 시간의 활용이 바로 그 방법으로, 심신의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찾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값 9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전통사찰음식	적문우리	우리
2	화두농고 열반하세	인광불광	불광
3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려라 문이당	문이당
4	산방일기	지허 여시아문	여시아문
5	마하루의 복음	대성탐구사	탐구사
6	법구경(작은경전1)	지현민족사	민족사
7	산승일기	지목우리	우리
8	티벳 해탈의 서	파미산책	정신세계사
9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효림	효림
10	나의 출가	박이문민들사	민들사

도서 안내: (02)737-0695

허허당 스님 '무심' 출간

선화 77점과 명상 에세이

십만동자 선화로 널리 알려진 허허당 스님이 명상 에세이 <무심>(한성)을 내놓았다.

이 책 속에 실린 그림들은 지난 6월 한 달간 스님 취리히 테제미드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 여기에 무심(無心)을 비롯 아름다운 세상, 운회, 귀향, 꿈 등 70여 편의 명상 에세이를 곁들여 책으로 묶었다. 특히 이 책에 소개된 '화엄법계도'는 스님이 20년 동안 십만동자승이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노작으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갤러리 제작된 이 책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 '하늘에서 꽃이 내리고'는 북으로 쓴 선사와 선화들, 2부 '아름다운 세상', 3부 '생명의 길' 등으로 구성된 구도하는 영혼의 글과 깨달음의 형상을 만나볼 수 있다. 4부 '큰 삼근 도적'은 스님이 출가하게 된 동기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담겨 있다. 5부 '생명의 축제는'는 지난 6월 스위스에서 전시회를 열며 쓴 유럽여행기이다.

수행자로서 끊임없이 욕심과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도의 여정을 글로 옮긴 스님의 명상 에세이는 그림과 한데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과 함께 마음이 청정해짐을 느끼게 해준다. 값 8천원.

김종근 기자



김형중씨 '휴정의 선시 연구'



청허당 선시 깊이와 너비

“선시(禪詩)에 대한 고찰은 새로운 국문학 영역의 개척이다. 앞으로 선시의 발굴·정리·고찰은 국문학의 지평을 넓힌다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인권의 교수는 선시가 국문학(사)에 차지하는 의미를 밝힌 '한국불교문학연구'에서 선시 연구의 필요성을 이렇게 밝혔다.

서산대사 휴정 스님의 선시 세계를 조명할 <휴정의 선시 연구>(아름다운세상)는 바로 그러한 국문학의 새로운 경작지를 일군 책이라 할 수 있겠다. 김형중(명성여고) 교법사의 박사학위 논문인 이 책은, <청허당집>을 비롯

스님의 창작 선시에 대한 특성과 그의 선시론 그리고 문학사적 의의를 살피고 있다.

이 책은 휴정 스님의 선시문학을 중국 당·송시대의 왕유·두보·한산 등의 선시를 어떻게 수용 발전시켰는가, 선시 이론을 한 시에 어떻게 접목하였는가를 다루고 있다.

특히 <청허당집>의 판본 네가지(초간본·용복사본·태안사본·묘향장본)를 처음으로 비교 검토하여, 시의 특성과 사상을 살핀 것은 이 책의 의미를 한층 더해준다. <청허당집>에 수록된 611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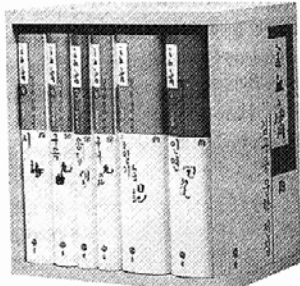
의 시를 토대로 글쓴이는 △오언절구로 압축 △즉흥적 △슬픔과 한의 정서 △다양한 시체 구사 등 11가지의 특징을 꼽고 있다.

스님은 중국 당송 문호들의 시를 수용, 나름대로의 선시 이론을 정리하여 조선 선시를 완성했던 것이다.

당나라 시에 뒤지지 않는 명시도 많다. 선가뿐만 아니라, 한시 단에서도 승속을 막론하고 사대 부들까지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던 사실, 그리고 일본에 <청허당집>과 <선가귀감>이 유통되었던 점으로 보아 휴정 스님의 시는 한국 한시사의 우뚝한 봉우리에 틀림없다. 값 2만원. 김종근 기자

'김구용 문학전집' 나왔다

시·연작장시·산문 등 6권 묶어



10여 년간 동학사(1940~1962)에 기거하면서 불교 경전을 섭렵,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독특한 시 세계를 구축한 시인 김구용(78·전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 문학의 모든 것을 수록한 <김구용 문학 전집>(솔)이 나왔다. 전 6권으로 묶인 이 전집은 시집 <시>, 연작장시 <구곡(九曲)> <송백팔(頌白八)> <구거(九居)>, 일기문 <구용일기>, 산문집 <인연>으로 이뤄졌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양고전 번역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품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연작장시 3권. 불교적 세계관에서 더 나아가 동양사상을 아우르는 정신의 편력을 보여준다. 참 지아를 찾아가는 지난한 구도의 과정을 그린 <구곡>, 참 말씀의 심원한 세계를 열어 보인 <송백팔>, 진정한 있음의 경지를 추구하

는 <구거>는 모두 선불교적 직관과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김구용의 시 세계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 '나'를 찾아가는 험난한 정신적 여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김구용 시인의 전통 예술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전통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의 궤적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전집 출간이 갖는 의의중 하나이다. 값 17만원. 김종근 기자

명의 허준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TV 동의보감

KBS-2 TV 전국은 지금에 방영된 <동의보감>의 내용 소개

동양 최고를 자랑하는 명의(名醫) 허준(許浚) 선생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가정환방 필독서이다. KBS-2 TV (전국은 지금)을 통해 300회 넘게 전국에 방영 소개된 내용을 프로그램 연출자였던 저자가 한 권으로 엮었다. 또한 기타 종합환방의서의 비방도 수록했다. 각종 질환별로 나누어 상세한 치료법이 담겨 있다.



황인형 역음 / A5판 / 334면 / 10,000원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한국사찰음식

우리나라 최초로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한 요리법과 사진 수록 깊은 산중 절에서나 맛볼 수 있는 사찰음식을 가정의 식탁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소개한 최초의 책으로 술향 풍기는 사찰음식의 상세한 요리법과 맛깔스러운 컬러 요리사진을 수록했다.

명산 고찰의 유명한 사찰음식 총망라

유서깊은 산사에 전하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을 총망라했다.



김연희 지음 / 4·연필형 / 156면 / 13,000원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전통사찰음식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의

4인 기준 요리법

적문 지음 / 4·연필형 / 176면 / 13,000원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과도한 육식과 기호식품에 탐닉한 나머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오신채(마늘, 파, 달래, 부추, 홍기)를 넣지 않은 담백하고 정갈하며 맛과 영양이 우수한 사찰음식이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통 사찰에서의 조리과정은 일반인들이 그대로 따라하기에 다소 어렵고 생소하다.

<전통사찰음식>은 옛부터 전해온 맛갈스러운 사찰음식을 사계절로 나누고, 4인 기준 정량을 표기하여 요리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였다.